

말레이시아 이 경근 선교사 소식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의 동역자분들께 선교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 KPM 선교사들이 조국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사태는 점차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남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확진 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꿈작 못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었나 하는 생각이 간절히 떠오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KPM 선교사들도 예외 없이 선교현장의 발이 묶여 선교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말레이시아는 지금 현재 9,000여명의 환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예외 없이 지난 3달간 자택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모든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나라인 이곳에서 한 달간 계속되는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 동안도 이슬람 사원의 집회도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원주민 교회들도 예배가 금지되어 3달 넘게 모이지를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원주민 마을에는 인터넷도 컴퓨터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부당국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시켰기에 원주민 교회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수개월 만에 다시 찾은 원주민교회)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는 3달만인 지난주부터 조금씩 경제활동을 재개 하고, 주 간 이동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원주민 마을로 쌀과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를 사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원주민 교인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에 한꺼번에 모이지를 못하고 몇 명씩 만 교회로 와서 우리들을 만나고 마스크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다행히 원주민 마을은 고립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진 자가 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레이시아의 다른 모든 교회들은 모임을 금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슬람국가인 이 나라교회는 매우 약한 교회인데 수개월째 예배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교회들이 많이 위축될까 심히 맘이 무겁고 안타가울 뿐입니다. 이 일을 빌미로 이슬람정부당국에서 앞으로도 교회 모임을 계속 탄압하지는 안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않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물러나고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조국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전 세계 흩어진 우리 KPM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 코오나 19의 바이러스가 물러나도록 그리고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수개월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교회와 원주민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신앙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말레이시아 이 경근 선교사 드립니다.